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Weekend
The Kwangju Ilbo
제1784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9월 1일 (음력 7월 20일) 토요일

첨단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9000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土)	2(日)
흐리고 비 20 / 23℃	비온뒤 갬 21 / 24℃

News

- 노인교통수당 2009년 폐지 ②
- 스타농민 대학 강단 선다 ④
- 이형택 3회전 진출 돌풍 ⑱

Jeollado

- 그 사람-송언종 前광주시장 ⑦

Entertainment

- 개그맨들 '영역파괴' 바람 ⑧
- 한국 배우 '월드스타' 시대 ⑨

Wellbeing

- 식품 탐구-사과 ⑬

우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인류사 대발견이냐 희대 사기극이냐

세계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할 대발견인가, 유물 사냥꾼이 벌이는 희대의 사기극인가.

전남 출신 고유물 수집가가 16년간에 걸쳐 중국대륙에서 수집, 발굴한 정체불명의 옥조각상들이 지금 중국정부의 비상한 관심속에 실체규명을 기다리고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영암태생 김희용(59·광주시 북구)씨. 80년대 서울에서 화랑을 경영하던 김씨는 중국으로 건너가 1990년부터 무려 16년간 '흑피옥(黑皮玉)'으로 불리는 조각상들을 수집해 비밀리에 국내로 반입해왔다. 김씨는 중국 내몽고자치주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도굴 조직으로부터 수수께끼의 고대무덤들에서 캐낸 것으로 알려진 10~60㎝크기의 옥 조각상들을 한점 한점 수집해왔다고 주장하고있다.

김씨는 또 도굴꾼들과의 16년간에 걸친 접촉 끝에 도굴 현장까지 접근 할 수 있었으며 현장에는 초고대문명의 유적임이 확실해 보이는 광대한 면적의 무덤들과 신전터가 있고 자신이 실제로 몇개의 무덤에서 흑피옥 조각상들을 발굴해내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김희용씨가 '태양을 굴리는 우신(牛神)상'으로 이름붙인 흑피옥 조각상. 높이 23㎝. 오른쪽은 '웃는 소녀상'으로 이름 붙인 흑피옥 조각상. 높이 42㎝. 김씨가 수집한 흑피옥상은 이밖에 태양신상, 남녀 조각상 등 500점이 넘는다. /최현배기자 choi@

영암 출신 김희용씨 "16년간 중국 대륙서 수집"

흑피옥(黑皮玉) 조각상 500점 中정부규명 추진

조각상들은 대개 사람이나 원시 신의 형상, 동물형상을 한 옥재질의 조각상들로, 표면은 한결같이 성분을 알 수없는 검은 도료로 칠해져있다.

김씨는 현재 이들 조각상 전체를 중국당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조각품 중 일부를 중국 현지 관료 및 고고학 전문가들에게 넘긴 상태다.

김씨는 자신이 갖고있는 500여점의 조각상을 모두 중국에 기증하는 대신 중국문물국(우리나라의 문화재청에 해당) 및 세계 유명 고고학자·언론이 동참한 가운데 현장에서 공개 발굴을 실시할 것과 이 유물들의 최초 발굴자가 한국인 김희용임을 명시해줄 것, 세계 순회전시회 권한을 보장해줄 것을 중국측에 요구하고있다.

김씨는 지난해 이들 조각품이 중국 고대문명의 하나인 홍산문화(紅山文化 : BC 4000~BC3000년) 이전시대의 유물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국내 고미술·고고학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의뢰했으나 "정체를 알 수 없다" "가짜인것 같다"는 판정을 받자 지난 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앞으로 편지를 보내 조각상 전체를 중국에 기증하다는 뜻을 전하고 지난 3월 중국에 입국해 현재 베이징에 머물고있다. 본보가 지난해 12월 광주시 모처에 보관된 김씨의 수집품들을 확인한 결과 이들 흑피옥 조각상들은 모두 500여점에 달하며 운반도중 실수로 깨진 조각품의 단면은 청록색 옥색깔 그대로였다. 또 조각상들 중 상당수는 고대조각상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기과장(남성성기 여성 둔부 등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양식)이 나타나 있으며 예술적 완성도가 비교적 뛰어나다.

김씨에 따르면 자신은 도굴과 매장문화재의 밀반출이 중벌로 다스려지는 중국에서 목숨을 걸고 이들 조각상을 수집해왔으며, 발굴 현지에는 이같은 유물 수만점이 쏟아져 나올 무덤터들이 셀 수 없이 널려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1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사기꾼 취급하는 국내학계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이 유물들은 인류가 공유해야할 유물이므로 전량 중국에 기증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한바 있다.

김씨가 수집한 흑피옥상들중 약 50여점을 감정한 전남대 임영진 교수(당시 전남대 박물관장)은 "놀라운 물건들이다. 그러나 가짜일 가능성이 더 크다. 김씨가 중국에서 속아서 구입한 물건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흑피옥 조각상들을 사진도록으로 본 미술평론가 정준모씨는 "사실이라면 놀라운 발굴이지만 이보다 더 진짜같은 모조품들이 중국과 동남아에 범람하고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씨를 도와 중국당국의 규명과 현장발굴 추진에 참여해온 전남과학대 정건재 교수는 "김씨와 함께 발굴현장에 가본 결과 김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시장 "신정아 임명 개입 안했다"

일부 보도 법적 대응키로

박광태 광주시장은 "신정아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선정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전혀 근거 없다.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짜 일부 언론이 박 시장이 신정아씨 비엔날레 공동감독 임명에 개입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신 감독은 지난달 4일 제98차 이사회의 감독 선정 당시 이사장실에서 처음 소개 받았다. 6월29일 한갑수 비엔날레 이사장으로부터 내국인 감독 선정에 대해 협의요청이 있었으나 한 이사장이 잘 알아서 결정하라고 했다"며 "한 이사장에게 일임한 사실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또 "나는 오히려 '신씨는 나이(35세)가 너무 어리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지난 7월4일 광주비엔날레 제98차 이사회 회의록을 토대로 한갑수 당시 이사장이 "명예이사장(박 시장)과도 의논을 해 오쿠이 엔위저 학장과 신정아 교수를 내정했다"는 발언과 함께 박 시장이"비엔날레 총감독 문제가 어려운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을 것 같다"며 "위원님들 참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고 말한 점을 들어 박 시장이 감독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비엔날레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은 예술감독 선정소위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된 데다 감독선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원 감사는 "(감독선정) 소위원회의 정보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로 앉아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처음 공동감독으로 추천된 김승덕·박만우씨 가운데 김씨가 고사했다고 박씨까지 후보에서 배제할 경우 (박씨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씨는 7월 1일 한갑수 이사장과 면담을 하고 2일 내정사실을 통보받은 뒤 4일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등 전격적으로 임명이 결정됐으며 이는 후보자들에게 영어프리젠테이션을 받거나 신원조회과정을 거쳤던 통상의 절차를 모두 생략한 것이어서 의혹을 사고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피랍자 19명 내일 새벽 귀국

인질 대표 "물의 일으켜 국민에 죄송"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아프간 피랍 한국인들의 귀국 계획과 관련, "오늘(31일) 저녁에 두바이에 도착한 후 1일 오후 두바이를 출발해 2일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9명 모두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카불~두바이~인천 노선을 이용해 안전하고 신속한 귀국이 이뤄지도록 준비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탈레반에 납치됐다가 지난달 29일 석방된 유경식(55) 씨는 지난달 31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큰 물의를 일으켰다는 생각에 잠을 못이뤘다"며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질생활과 관련, "기운이 없어서 하루종일 잠자고, 다시 잤다"며 "사태 초반에 빨리 구출해 달라고 금식기도를 했는데, 사흘을 안먹으니 탈레반이 보기에 단식으로 보여진 것 같다"고 소개했다.

아프간에서 희생된 故 배형규 목사의 형 신규씨는 이날 "아프간에 억류돼 있던 인질 전원이 석방됨에 따라 배목사의 장례식을 6일부터 샘물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탈레반 반군세력에 억류됐던 한국인 인질 19명 전원의 석방 대가로 한국 정부가 탈레반측에 모두 200만달러(약 18억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호남예술제 입상작 전시회

오늘부터 연말까지 광주지하철 금남로 4가역